

# 일본고전시가 속에 나타난 「바람」의 이미지

南 二 淑\*

(e-mail : ysnam@kunsan.ac.kr)

---

## 目 次

---

- I. 첫머리에
  - II. 고대 와카 속의 바람의 이미지
    - 1. 영력을 지닌 바람
    - 2. 계절의 전령사
    - 3. 로맨스와 실연의 이미지
    - 4. 심부름꾼 · 방해물로서의 이미지
  - III. 나오며
- 
- 

## I. 첫머리에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에 바람과 관계되는 말들이 많이 있다. 친구가 오랜만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하는 말인 ‘웬 바람이 불었어?’라던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작은 여행을 나설 때 쓰는 “바람 좀 쐬려고”라는 말,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덧없다고 느꼈을 때 토해내는 ‘인생은 다 바람 같은 거야’라는 말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대중가요를 보면 바람을 소재로 한 노래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바람이려오>, <바람만 바람만>, <바람, 바람, 바람> 등이 그것이다. 팝송에서는 미국 가수 켄저스의 <Dust In The Wind>를 들 수 있다. 한국 가수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과 켄저스의 <Dust In The Wind>의 가사 일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군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내 님은 바람이런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날 올려놓고 가는 바람

Don't hang on Nothing lasts forever  
 but the earth and sky It slips away  
 All your money won't another minute buy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이를 종합해 보면 ‘보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멈추지 않는다.’는 바람의 속성을 이용한 노래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일순의 멈춤도 허락하지 않고 움직이는 바람을 일본의 옛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만요슈(万葉集)』의 만가(挽歌) 3625에도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行く水の 反らぬごとく 吹く風の見えぬがごとく 跡もなき 世の人にして 別れにし  
 妹が着せてし なれ衣 袖片敷きて ひとりかも寝む  
 흘러가는 물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부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럼 덧없는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이별한 아내가 입혀준 낡은 옷소매를 깔  
 고 홀로 잠을 청해야 하는가.

만요시대의 가인도 덧없는 인생을 ‘부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吹く風の見えぬがごとく)’ 이라는 표현으로 현대인의 인식과 다름없이 바람의 속성을 간파해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花鳥風月’을 대상으로 읊은 노래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는 일본 와카의 경우 ‘바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몇 번이고 되풀이 되어 읊어지는 사이에 고착화된 전통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며 이렇게 불린 노래는 어떤 생성과정을 거치며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는가. 이를 위해 『만요슈(万葉集)』 나아가 『고킨슈(古今集)』, 『고센슈(後撰集)』, 『슈이슈(拾遺集)』, 『신코킨슈(新古今集)』에 이르는 팔대집(八代集)을 대상으로 삼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바람을 소재로 한 노래는 『고킨슈(古今集)』에 78수, 『고센슈(後撰集)』에 80수, 『슈이슈(拾遺集)』에 56수, 『신코킨슈(新古今集)』에 87수가 수록되어

있다. 『만요슈(万葉集)』에는 19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도 있으므로 와카를 읽고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항목을 분류하여 검토한 후 대표성이 있는 노래를 소개해 가는 형식으로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 Ⅱ. 고대 와카 속의 바람의 이미지

### 1. 영력을 지닌 바람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바람은 공기의 흐름에 불과하지만, 나라(奈良)시대 이전에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의해 수태가 가능하다고 믿고, 아스카 산이나 하쓰세 등의 산에는 풍신이 존재해 바람을 불게 한다고 믿었다고 한다.<sup>1)</sup>

『만요슈(万葉集)』에서도 이와 같은 노래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덴무(天武)천황 재위 때 궁정가인으로 활약한 가키노모토 히토마로(柿本人磨呂)는 임신(壬申)亂때의 大海人皇子(天武帝)가 적군을 대패시킨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わたらひの 齋宮ゆ 神風に い吹き惑はし 雨雲を 日の目もみせず 常闇に 覆ひたまひて 定めてし 瑞穂の国を 神ながら 太敷まして…

(와타라이)의 이세신궁에서 神風이 불어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비구름으로 빛을 가려 세상을 평정시킨 아름다운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고... (万葉 卷二 199)

장가(長歌)이기 때문에 일부만 인용했지만, 노래 내용은 이세신궁(伊勢神宮)으로부터 부는 바람, 즉 ‘神風’이 불어 일본을 도왔다며 ‘神風’이 부는 이세(伊勢)란 나라야말로 아름다운 나라이며 그 나라를 다케치노 미코(高市皇子)가 다스려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라 믿었는데 빨리 소천하여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미카제’ 즉, ‘神風’은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日本書紀』 卷六의 「垂仁紀」에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가 ‘이세’에 신궁을 세우기를 바라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1) 大野晋·佐竹昭広·前田金五郎 編(1974), 『岩波 古語辞典』, 岩波書店, p.294

この神風(かむかぜ)の伊勢国は、即ち常世の波の重浪帰する国なり。是の国に居らむと 思ふ  
가미카제가 부는 이세는 '도쿄요'의 파도가 아름답게 밀려오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 머  
물고 싶다.

일본 황실의 종묘인 이세신궁은 이렇게 하여 기원전 2년에 처음으로 아마테  
라스 오미카미가 강림하게 되어 그 명으로 세워진 곳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  
에서의 '가무카제노(神風の)'란 가어는 '이세'를 수식하는 마쿠라고토바(枕詞)<sup>2)</sup>  
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는 천황이 적을 용감하게 물리친 이세의 석벽을  
순례하고 살펴보며 부른 다음의 일본서기 歌謡<sup>3)</sup>와 만요가에서도 그 용례를 찾  
아볼 수 있다.

神風の 伊勢の海の 大石にや い這い廻る 細螺の 細螺の 吾子よ 吾子よ 撃ちてし止まむ 撃ちて  
し止まむ  
이세 바다의 큰 석벽에 착 달라붙어 용감하게 기어오르는 비단고둥처럼 적을 철저히  
물리치차 물리쳐

'가무카제노(神風の)'란 용어는 빼고 해석해 보았는데, 신궁이 있는 이세지방  
을 꾸미는 마쿠라고토바이기 때문에 '신풍이 부는' 이라는 뜻을 첨가해도 어색  
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다음의 노래들은 '가무카제노(神風の)'란  
시구를 살려 해석하고자 한다.

神風の 伊勢の国にも あらましを なにしか来けむ 君も あらなくに  
신풍이 부는 이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이도 안 계시는데  
(万葉 卷二 163)

神風の 伊勢の浜荻 折り伏せて 旅寝やすらむ 荒き浜辺に  
신풍이 부는 이세의 물억새 위에 엎드려 임은 잠들어 있는 것일까 황량한 해변가에서  
(万葉 卷四 500)

神風の 伊勢の海の 朝なぎに 来寄る深海松 … 深めし我を 股海松の また行き帰り 妻  
と言はじとかも 思ほせる君  
신풍이 부는 이세바다의 잔잔한 아침바다의 물결에 밀려오는 청각채처럼…깊이 사모해  
온 나를 다시 돌아와 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万葉 卷四 3301)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세지역은 폭풍이 강한 토지로 이곳에 부는 바람

2) 어떤 특정한 노래말을 수식하는 다섯 음절로 된 노래말이다.

3) 荻原浅男 鴻巣隼雄 校注·訳, 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小学館, 1978, p.397

을 신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으로,<sup>4)</sup> 이세지방을 노래할 때에는 항상 신평 즉 ‘가무카제(神風)’란 표현이 읊어지고 있다. 애당초 마쿠라고토바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술적인 뜻으로 쓰였다는 설<sup>5)</sup>이 있는데, 여기서 ‘신평’이란 표현은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 이세나 이세에 관계된 지역을 관용적으로 꾸미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마쿠라코토바의 용례는 『신고킨슈(新古今集)』에서도 「神祇歌」편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소학관(小学館)본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우리말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神風や’란 표현은 ‘미스소강(御裳濯川)’, ‘이즈즈강(五十鈴の川)’, ‘이세지방(伊勢の国)’ 등 일본 천황 가문의 신을 모시는 신궁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나 신사의 경내에 심는 ‘비쭈기나무(玉串の葉)’와 같이 신성함을 나타내는 경물과 함께 읊어지고 있다.

神風や御裳濯川のそのかみに契りしことの末をたがふな  
이세의 미스소강변에 계시는 당신, 옛날 신에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어기지 마시오  
(新古今 卷十九 1871)

神風や五十鈴川数知らずすむべき御代にまた帰り来ん  
이세 이즈즈강에 이는 파도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마음을 정갈히 하여 또 돌아오시오  
(新古今 卷十九 1874)

神風や五十鈴の川宮柱幾千代すめと立てはじめけん  
이세의 이즈즈강의 궁궐 기둥은 신이 맑은 강물의 흐름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도록 세운 것일까  
(新古今 卷十九 1882)

神風や玉串の葉を取りかざし内外の宮に君をこそ祈れ  
이세의 외궁과 내궁에 비쭈기나무를 심어 당신의 번영을 빈다오  
(新古今 卷十九 1883)

‘신평이로구나(神風や)’라고 독립해 읊어지고 있는 ‘기레지(切字)’의 부분의 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기레지(切字)’란 우리말의 ‘~이여’ ‘~로다’ ‘~로구나’ 등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중간에 여운을 주거나 깊은 영탄을 표현하여 줌으로써 단숨에 읊어 끝나버리는 일본시의 짧은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교주(校注)와 현대어역을 담당한 미네무라 후미토(峯村文人) 역시 ‘神風や’를 이세지방을 꾸미는 마쿠라고토바로 처리하고 있다<sup>6)</sup>고 보여진다. 하지만 노래의 첫머리에 ‘신평이로구나’라는 해석을 넣어도 결코 어색하거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4) 犬養廉 외 6인 감수, 『和歌大辞典』, 明治書院, 1989, p.190

5) 최충희 외 3인(2004), 『일본시가문학사』, 태학사, p.61

6) 峯村文人 校注・訳(1999), 『新古今和歌集』, 小学館, p.542~545 등

같은 가집인 『신고킨와카슈』의 다음 노래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神風’ 자체를 의식하며 ‘신평(神風)’을 무언가를 기원하는 대상으로서 삼고 있다.

神風や豊御幣になびく四手かけて仰ぐといふもかしこし

신평이여. 공양물 위에 나부끼는 인줄 있는 곳에서 기도 바치며 우러르는 것도 황송하  
기만 하다 (新古今 卷十九 1876)

이세지방, 신평이 부는 곳에서 신에게 공양물을 바치며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끼는 인줄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신을 우러르는 것만으로도 황송하다고 하며 장소의 분위기와 작자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엄숙한 모습으로 신에게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모습을 생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일본 역사를 보면 1281年 고안노에키(弘安の役) 당시 일본에 침략한 몽골군이 폭풍에 의해 괴멸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불었던 바람을 신의 바람, 즉 ‘가미카제’라 일컫고 있다. 실제로 그 바람의 실체는 우연히 서일본을 통과한 태풍 또는 저기압에 의한 폭풍에 불과했지만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大日本史』는 ‘神風’이 일본을 구했다는 사실을 부풀리기 위해 1281年 고안노에키(弘安の役)는 당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안노에키 때의 폭풍뿐이며, 분에이노에키(文永の役) 때에는 몽골군이 스스로 철퇴를 결정한 것으로 폭풍과는 무관하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후 ‘가미카제’란 용어는 ‘몽골 침략의 고사’에서 ‘생각지 않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바람’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 2. 계절의 전령사

다음으로는 다른 경물들과 함께 읊어져 계절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며 인간의 마음의 상태까지 좌우하는 바람의 이미지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고킨슈(古今集)』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袖ひちてむすびし水のこほれるを春立つけふの風やとくらむ

여름 동안 소매가 젖을 정도로 퍼 올린 물이 겨울에는 뽕뽕 얼었는데 그 얼음을 봄바  
람이 녹이겠구나 (古今 卷一 2)

谷風の解くる氷のひまごとにうちいづる波や春の初花

계곡을 통과하는 봄바람에 의해 녹은 물이 얼음들 사이로 솟아오르는 모습 그것이 봄을 장식해주는 가장 먼저 핀 꽃과 같다 (古今 卷一 12)

花の香を風のたよりにたぐへてぞ鶯誘ふしるべには遣る

매화꽃의 향을 바람에 실어 보내 꾀꼬리를 불러낼 길잡이로 삼을까 (古今 卷一 13)

春霞春の山辺はとをけれど吹きくる風は花の香ぞする

안개 자욱이 이는 봄의 산기슭 멀다 해도 불어오는 바람은 꽃향기 머금었네

(古今 卷二 103)

바람은 경우에 따라 새로운 계절의 도래를 알려주는 예언자가 되기도 하고 마법을 행사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얼어붙은 계곡을 녹이고 향기로운 매화 향을 전해주고 꾀꼬리를 유혹하고, 백화가 만발하게도 한다. 혹은 가을의 도래를 알리는 기러기의 전령이 되기도 하고 산야를 알록달록 물들이기도 한다.

『고센슈(後撰集)』, 『슈이슈(拾遺集)』의 경우도 다음의 노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노래하는 시점이나 표현이 달라졌을 뿐 비슷한 내용으로 봄바람이 봄의 도래를 알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水の面に吹きみだる春風や池の氷を今日とはとくらむ

수면 위를 부는 봄바람은 오늘은 연못의 얼음을 녹이겠지 (後撰 卷一 11)

吹く風や春立ち来ぬと告げつらん枝に籠れる花咲きにけり

바람이 입춘의 도래를 알린 것일까 가지 안에 숨었던 꽃이 봉오리를 터트렸구나

(後撰 卷一 12)

吹く風をなに厭ひけん梅の花散りくる時ぞ香はまさりける

부는 바람을 왜 싫어했을까 매화꽃은 떨어질 때에야말로 더욱 향기가 진하다는 알았다

(拾遺 卷一 30)

吹く風にあらそひかねてあしひきの山の桜はほころびにけり

불어오는 바람을 어찌할 수 없어 산 벚꽃이 봉오리를 터뜨렸구나 (拾遺 卷一 39)

가을노래(秋歌)의 경우에도 바람이 가장 먼저 가을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秋来ぬと目にはさやかに見えねども風の音にぞおどろかれぬる

가을이 왔다고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문득 놀란다

(古今 卷四 169)

가을이 되었다고 바로 가을의 정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건 아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간다는 입추가 되었지만 눈앞의 풍경은 여름이나 다름없다. 입추

의 날 가을의 도래를 눈이 아니라 바람 소리에 의해 알고 놀랐음을 읊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sup>7)</sup> 이어지는 초가을의 노래 역시,

川風の涼しくあるかうちよする波とともにや秋や立つらむ

불어오는 강바람 시원하구나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가을이 시작되는지

(古今 卷四 170)

신선한 가을바람으로 밀려드는 파도로 인해 가을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읊고 있다. 작자는 늦더위를 식히려 물놀이를 나선 강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고센슈(後選集)』의 경우도 『고킨슈(古今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을의 권두가로 가을바람으로 입추임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신고킨슈(新古今集)』의 경우도 “바람에 의해 칙잎이 뒤집혀 하얀 뒷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가을임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옛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자연의 움직임까지도 온 몸을 동원하여 민감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にはかにも風のすずしくなりぬるか秋立つ日とはむべもいひけり

갑자기 바람이 시원해졌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란 이름 과연 그대로구나

(後撰 卷五 217)

神南備の三室の山の葛かづら裏吹き返す秋は来にけり

간나비 미무로산의 칙잎을 바람이 뒤집는 것을 보니 가을이 정말 오긴 왔구나

(新古今 卷四 285)

다음으로 눈에 띄는 표현은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가을바람에 의해 듣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러기는 봄에 북쪽으로 날아갔다가 가을이 되면서 북에서 날아온다. 한(漢)나라 장수 소무(蘇武)의 고사<sup>8)</sup>를 밟아 기러기 울음소리를 들리는데 누구 소식을 가지고 온 심부름꾼인가 하며 기러기를 의인화하여 누군가의 소식을 고대하고 있음을 읊고 있다.

秋風にはつかりがねぞ聞ゆる誰がたまづきをかけて来つらむ

가을바람에 첫 기러기 소리가 들려오네 누가 보낸 소식을 가지고 날아오는 걸까

(古今 卷五 207)

7) 이 와카는 한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가을의 도래에 놀랐다고 하는 표현의 발상은 중국의 한시에서 「驚秋」라는 詩語로 자주 볼 수 있다.

8) 기러기에게 편지를 부탁하는 설정은 흉노족에 포로가 된 전한의 소무에 의한 것이다. 그 내용은 소무가 흉노족에게 잡혀 20년이 지난 후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편지를 달아 보내었다. 이 편지를 한무제가 봄으로써 소무는 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가을바람을 타고 질서정연하게 떼 지어 하늘을 날며 우는 기러기의 울음소리와 모습을 바다를 노 저어 가는 한 척의 배에 비유해 읊은 다음 와카의 표현도 참으로 인상적이다.

秋風に声をほにあげてくる舟は天の門わたる雁にぞありける

가을바람에 노 젓는 소리 높여 오는 저 배는 하늘을 지나가는 기러기인가 하노라

(古今 卷五 212)

그런가 하면 가을바람은 싸리를 물들여 가을이 깊어졌음을 알린다. 싸리꽃은 일본 전역 산야에 자생하며 가을을 장식하는 꽃으로 일본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꽃이다. 임성철에 의하면<sup>9)</sup> 『만요슈』에 가장 많이 읊어지는 꽃은 싸리와 외래화인 매화인데, 그중 싸리꽃이 141수로 매화꽃을 읊은 119수를 능가하고 있다. 일본 고대인의 싸리꽃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싸리는 관상용으로도 쓰였지만 지금은 말과 소의 사료로도 쓰이고 소박한 정원을 만드는데도 쓰이는 등 생활에 유용한 식물이라고 한다.

秋風の日にけに吹けば 露を重み萩の下葉は色付きにけり

가을바람 더욱 불어와 아래쪽 싸리잎은 물들어 버렸구나

(万葉 卷五 2205)

秋萩の下葉もみちぬ<sup>10)</sup>あらたまの月の経ぬれば風をいたみかも

가을싸리 물들었네 달이 바뀌어 바람이 거칠어진 것일까

(万葉 卷五 2205)

いとどしく物思ふやどの萩の葉に秋と告げつる風のわびしさ

여느 때보다 사랑으로 변민하는 정원의 싸리 잎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바람이 웬지 쓸쓸히 느껴진다

(後撰 卷五 220)

風寒み我が唐衣打つ時ぞ萩の下葉も色まさりける

바람이 차가워져 다듬이질 할 무렵 싸리잎 색도 더욱 짙어졌구나

(拾遺 卷三 187)

뿐만 아니라 바람은 알록달록 단풍잎을 만들어 산야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산야를 곱게 물들인 단풍잎을 지게 해 옛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한다.

秋くれど色もかわらぬ常盤山その紅葉を風ぞかしける

가을 깊어도 변하지 않는 도키와산 다른 단풍을 바람이 불어주었나 (古今 卷七 362)

9) 임성철(2002), 『일본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보고사, 406~407p.

10) 大貫茂(1993), 『萬葉の花鳥風月』,保育社, 137p 참조. 만엽집에 나타난 모미치(もみち) 모미쓰(もみつ)의 용례는 100을 넘는다. 당시에는 단풍나무뿐만 아니라, 싸리·참나무·감나무·오미자 역시 단풍(모미지)이라고 읊어졌다고 한다.

紅葉ばの色にまかせて常盤木も風にうつろふ秋の山かな  
바람으로 상록수조차도 단풍색으로 변하는 가을 산이여 (新古今 卷七 536)

전자는 늘 푸른 도키와산(常盤山)<sup>11)</sup>이니까 단풍이 들 리 없다. 가을이 되어 도 변색되지 않는 숲에 단풍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이는 바람이 몰고 온 신의 공양물인가 하며 지적유희를 하는 듯한 기분으로 읊고 있다. 그에 비해 후자는 『고킨슈(古今集)』 앞의 노래를 본가(本歌)로 하여 바람에 의해 단풍이 곱게 든 가을산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울긋불긋 아름다워진 풍경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심에 젖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번민에 빠지게 한다.

わが宿にもみつかえて見るごとに妹をかけつつ恋ひぬ日は無し  
뜰 앞 몰든 단풍을 볼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여 그리지 않는 날 없으랴 (万葉 卷五 1623)

秋萩の下葉色づく今よりやひとりある人の寝ねがてにする  
가을싸리 단풍드는 지금부터 홀로 잠들기 어려우리라 (古今 卷七 220)  
恋しくば見てもしのばむ紅葉ばを吹きな散らしそ山おろしの風  
임 그리우면 그냥 지켜보리. 단풍을 흩트리지 말아다오 산바람이여 (古今 卷五 285)  
木の葉散る宿に片敷く袖の色をありとも知らで嵐かな  
단풍지는 집 홀로 잠든 눈물을 아는가 모르는가. 산바람이여 (新古今 卷六 559)  
秋風にかきなす琴の声にさへはかなく人の恋しかるらむ  
가을바람 속 뜰는 가야금 소리마저도 덧없어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古今 卷十二 586)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단풍이 변색하여 떨어지고 가을바람으로 초목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그러다 고토(琴) 연주하는 소리라도 들리면 사람들이 느끼는 비애감과 인생의 덧없음은 더 한층 증폭된다.

秋風の身に寒ければつれもなき人をぞ頼むくるる夜ごとに  
가을바람이 춥게 느껴져 무정한 임을 기다리네 어두운 밤마다 (古今 卷十二 555)  
来ぬ人を待つ夕暮の秋風はいかに吹けばかわびしかるらむ  
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는 저녁의 가을바람은 어찌 불기에 이리 쓸쓸한 걸까 (古今 卷十五 777)

11) 도키와(常盤)란 말은 영구불변한 것과 늘 푸른 상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키와산은 상록수림의 숲이 산을 가리킨다.

12) '本歌取り'란 옛 노래로부터 발상의 영향을 받거나 옛 노래에 자주 쓰여 온 노래의 구를 차용하여 새로운 와카를 창작하는 방법이다.

다음 노래는 서문을 참고로 하면 병상에 누워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읊은 노래이다. 가을 낙엽이 지는 것을 자신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빗대어 바람이 부는 대로 지는 단풍보다 자신의 운명은 더욱 덧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 다음의 고킨 286의 노래도 자신의 불안한 운명을 바람에 지는 낙엽에 빗대어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紅葉ばを風にまかせて見るよりもはかなものは命なりけり

바람이 부는 대로 지는 단풍을 보는 것보다 더욱 덧없는 것은 인생일 것이다

(古今 卷十六 859)

秋風にあへず散りぬるもみち葉のゆくへさだめぬ我ぞかなしき

가을바람에 못 견디고 저버린 단풍잎처럼 갈 곳 정하지 못한 이 내 몸 서글퍼라

(古今 卷五 286)

이와 같이 가을바람은 우리의 산야를 아름답게 물들이기도 하고 초목을 시들게 하기도 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역동적 존재로 노래되어지고 있다. 모든 생명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그러한 자연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믿어서일까. 옛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과정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로맨스와 실연의 이미지

『만요슈(万葉集)』에 가을바람을 소재로 한 노래에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누카다 오키미(額田 王)의 노래로 현재까지도 애송되고 있는 널리 알려진 노래이다.

君待つと我が恋ひ居ればわがやどの簾動かし秋の風吹く

당신 오기를 기다리며 그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가을바람이 내 방에 드리운 발을 살짝 건드린다

(万葉 卷四 488)

웬지 모르게 사람이 그리운 가을 저녁, 방 앞에 드리워진 발을 움직이며 침입하는 바람과 함께 발 틈새로 남몰래 들어오는 남자의 그림자를 연상하며 읊은 노래이다. 사랑스런 이의 방문을 암시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음을 가을바람을 소재로 하여 낭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노래는 규원의 마음을 읊는 중

## 국고대의 가요, 『樂府詩集』 卷46 「吳聲歌曲」에 실린

夜あひ思ふ風の窓の簾を吹きて動かせばこれあなたの来たるかと思ふ

그리워 서로 잠 못 이루는 밤. 바람이 창가의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스런 그대가  
온게 아닌가 하네

라고 노래한 중국 노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노래라고 지적되고 있다.<sup>13)</sup> 이와  
같은 발상 하에 바람을 노래한 내용은 『伊勢物語』 64단의 노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4)</sup>

吹く風にわが身をなさば玉簾隙求めつつ入るべきものを

날 바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 방의 발 틈새로 들어가 당신을 볼 수 있을 텐데

‘서신만으로 쉽게 정을 통할 수 없는 여인에 대한 원망스런 마음과 내가 바  
람이 될 수 있다면 자유로이 당신과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  
음을 담고 있다. 이 노래 역시 멀리 타향에 있어 만날 수 없는 아내의 심경을  
노래한 漢代의 『古詩十九首』 속의 ‘願はくは西南の風となりはるかに赴きて君  
が懐に入らむ(바라건대 서남풍이 되어 먼 곳에 있는 당신을 향해 그대 품으로  
안기리)’(文選 卷23) 노래와 닮아 있다는 주석서도 있는데 <sup>15)</sup> 발상 그 자체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사랑거리는 가을바람을 소재로  
해 이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한 경우는 중국시의 영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만요슈(萬葉集)』의 ‘가을바람’의 용례를 조사해 보면 칠석을 중심으로 부  
른 ‘칠석’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상세계의 로맨스, 견우와 직녀가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를 이용해 은하수를 건너 일 년에 한 번 만나 애뜻한 사  
랑을 나누고 다시 헤어진다고 아름답고 애뜻한 사랑이야기는 충분히 고대인들  
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칠석  
무렵의 차분한 초가을의 풍경 또한 가인들을 여름의 지긋지긋한 무더위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서정의 세계로 유혹했을 것이다.

『만요슈(萬葉集)』의 卷10의 「秋の雜歌」를 보면 칠월 칠일 칠석날 밤에  
직녀성이 은하수를 건너 견우성을 만난다고 하는 중국의 전설 및 이를 토대로  
한 노래가 배열되어 있다. <sup>16)</sup> 이 중 바람과 관계있는 몇 수만을 소개하면 다

13)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萬葉集1』, 小學館, 1994, p.269

14) 中野幸一譯注, 『伊勢物語』, 旺文社, 1990, p.112

15) 渡辺秀夫, 『詩歌の森』, 大修館書店, 1995, p.161

음과 같다.

칠석날 밤에 부는 바람은 견우와 직녀의 회합을 알리는 심부름꾼이고 그 바람이 상봉의 기쁨과 이별의 한을 운반해온다고 믿고 있다.

天の川 水陰草の 秋風に なびかふ見れば 時は来にけり

은하수의 수초가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니 때는 온 것 같다 (万葉 卷十 2013)

ま日長く 恋ふる心ゆ 秋風に 妹が音聞こゆ 紐解き行かな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는데 가을바람에 님의 기척이 느껴진다 허리띠를 풀고 만나러 가자 (万葉 卷十 2016)

彦星と 織女と今夜 逢はむ 天の川門に 波立つなゆめ

견우와 직녀가 오늘밤 만나는 아마노가와 강 입구 파도여 제발 거칠게 일지 말아라 (万葉 卷十 2040)

秋風の 吹き漂はす 白雲は 織女の 天つ領巾かも

가을바람이 불어 나부끼는 흰구름은 직녀가 지닌 베일일지도... (万葉 卷十 2041)

가을바람은 이와는 다른 정취도 자아내고 있다.

秋風にあふたのみこそかなしけれわが身むなしくなりぬとおもへば

가을바람을 만난 벼는 안쓰럽다 바람 때문에 상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古今 卷十五 822)

표면적인 의미는 위에서 해석한 대로이지만 이 노래에 숨은 뜻은 ‘의지하고 있는 당신에게 배신당한 일이야말로 슬픈 일이다. 가을바람을 맞은 벼의 열매가 텅 빈 것처럼 내 신세도 덧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로 주석서를 참고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다.<sup>17)</sup>

가을바람은 다음의 노래에서와 같이 너무 춥게 느껴진다. 그런 쌀쌀한 계절이기에 행여 무정한 임이라도 마음 풀릴까 해서 기다리는 게 당시의 여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다.<sup>18)</sup>

16) 권8 · 권9 등 다른 권에 배열되어 있어 132수의 노래가 보이고 있다. 칠석을 둘러싼 전설 및 습속은 일찍이 일본에 전해져 귀족의 저택에서 詩歌의 宴會가 개최되고 덴표 元年(724년)에는 朝廷의 연중행사로 자리 잡는다. 아래 소개하는 노래는 가키노 히토마로의 작품인데 윤영수에 의하면 히토마로 칠석가의 경우 중국의 전설 한시와는 달리 일본적 전통과 생활·신화적 배경 하에 제작되고 천상의 로맨스가 아니라 지상적인 사랑이야기로 변용시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윤영수, 「人麻呂歌集 七夕歌의 文學史的 意義」, 『동아시아고대학』, 제26집, 동아시아고대학회, p.366 참조

17)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古今和歌集』, 小學館, 1994 등 많은 주석서가 같은 뜻으로 해석

18) 실제로는 무정한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입장이 되어 남성인 素性(소세이) 스님이 부른 노래임

風の身に寒ければつれもなき人をぞ頼むくるる夜ごとに  
가을바람이 춥게 느껴져 무정한 입을 기다리네 어두운 밤마다 (古今 卷十二 555)

다음의 노래들을 보면 당시의 연인들은 그다지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秋風に山の木の葉のうつろへば人の心もいかがとぞ思ふ  
가을바람에 산 위의 나뭇잎이 색 바래지면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네  
(古今 卷十四 714)

思ふよりいかにせよとか秋風になびく浅茅の色ことになる  
이 이상 어찌 사랑하라고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띠풀처럼 색깔 바뀌는 걸까  
(古今 卷十四 725)

어떤 이는 가을바람으로 나뭇잎 색이 바래지면 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게 되고, 어떤 이는 상대의 마음이 가을의 띠풀 색처럼 변해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게 사람을 가리면서 부는 것도 아닐 텐데 가을바람은 이렇게도 사람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식으로 다음처럼 읊고 있다.

来ぬ人を待つ夕暮の秋風はいかに吹けばかわびしかるらむ  
안 오는 이를 기다리는 저녁의 가을바람은 어찌 부는 것이기에 이리 쓸쓸한 걸까  
(古今 卷十五 777)

秋風は身をわけてしも吹かなくに人の心の空になるらむ  
가을바람은 사람을 가리면서 불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빈 껍질 같이 될까  
(古今 卷十五 787)

가을바람이 불 무렵 때마침 자신에 대한 태도가 서먹서먹해지고 냉담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가을바람이 자아내는 정취가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가을바람의 가을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가을은 ‘아키(秋)’로, 이는 ‘싫증(飽き)’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키(飽き)’와 동음이다. 이 때문에 ‘아키(秋)’란 계절은 남녀의 불화나 변심을 의미하는 노래에 많이 등장하고 ‘아키가제(秋風)’의 가어(歌語)도 그렇게 읊어지는 경우가 많다.

秋風の吹き裏がへす葛の葉のうらみても猶うらめしき哉  
가을바람에 날려 뒤집히는 칙잎처럼 원망할수록 더욱 한스럽기만 하다  
(古今 卷十五 823)

우리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노래인데 “가을바람에 날려 뒤집히는 칙잎(秋風の吹き裏がへす葛の葉の)처럼”까지가 다음 구를 수식하는 긴 수식어 ‘조고토바(序詞)’<sup>19)</sup>에 해당한다. 가을바람에 칙의 잎이 뒷면을 보이며 휘날리는 정경을 포착하여 「뒷면(裏)」이라는 말에서 나온 동음의 ‘한스럽다(うらめしき)’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때 ‘아키카제(秋風)’의 ‘아키(秋)’는 ‘싫증(飽き)’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두 수의 노래는 『고센슈(後選集)』에 실려 있다. 이 가집은 일상의 공간에서 소박하게 읊어졌던 와카를 그대로 소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증답가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아래 와카는 음력 7월에 어느 여성이 당대의 호색한인 ‘나리히라’(業平)에게 보낸 노래이다.

秋萩を色どる風の吹きぬれば人の心もうたがはれけり  
가을싸리를 물들게 하는 바람이 불기에 당신의 마음에도 싫증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요  
(後撰 卷五 223)

이 노래에 ‘나리히라’는 첫 구 ‘秋萩を色どる風(가을싸리를 물들게 하는 바람)’를 그대로 맞받아서,

秋萩を色どる風は吹きぬとも心はかれじ草葉ならねば  
가을싸리를 물들게 하는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이 당신을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시드는 풀잎은 아니니까요  
(後撰 卷五 224)

라고 멋지게 응수하고 있다. ‘가을싸리를 물들게 하는 바람(秋萩を色どる風)’란 바로 연인에게 싫증을 느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같은 가집에 실려 있는 다음 증답가에도 가을과 싫증을 연상시키는 ‘바람소리(風の音)’란 가어(歌語)가 사용되고 있다. 연인에게 잊혀 슬퍼하고 있는 여자 친구에게 ‘바람소리(風の音)’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世の中はいかにやいかに風の音を聞くにも今は物やかなしき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된 거지요 바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계절이군요  
(後撰 卷十八 1292)

라고 읊자, 친구는

19) 단어 그대로 ‘서론이 되는 말’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쿠라고토바(枕詞)가 5음절의 단구(單句)로 특별한 의미나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조고토바(序詞)는 두 구 이상으로 특정 어구를 수식하는 점이 다르다.

世の中はいざともいさや風の音は秋にあきそふ心地こそすれ

두 사람 사이는 어찌 됐는지 어쩔든 바람 소리는 가을(秋)이란 소리가 연상시키는 싫증(飽き)이 더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後撰 卷十八 1293)

‘秋にあきそふ’란 표현을 사용하여 연인과 순조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마음을 와카로 캐치볼하고 있는 듯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바람’을 소재로 하여 같은 취지로 읊어진 노래들이 상당수 있다.

吹く風に雲のはたてはとどむともいかが頼まん人の心は

부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구름은 어딘가에 머무른다 해도 어찌 의지할 수 있을까. 한없이 변해가는 사람마음 또한 그러하다 (拾遺 卷十四 902)

世中はいざともいさや風の音はあきにあき添ふ心地こそすれ

남녀간이란 정말 모르겠다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니 싫증에 싫증이 더해가는 느낌이 들 뿐이다 (拾遺 卷十九 1238)

風はやみ峰の葛葉のともすればあやかりやすき人の心か

바람이 세차 산봉우리 칙잎이 뒤집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인가 (拾遺 卷十九 1251)

이와 같이 가을바람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읊어지고 있는데 부채와 함께 등장하면 더욱 기피되는 대상이 된다.

ゆゆしとて忌むとも今はかひもあらじ憂きをば風につけてやみなむ

부채를 불길한 것이라고 꺼려해도 별 수 없다 님에게 버림받은 괴로움을 부채 바람에 날려 보내 버리자 (拾遺 卷十九 1270)

『大和物語』 91段을 참고하면 후지와라노 사다가타(藤原定方)가 가모마즈리 축제일이 되어 부채를 잃어버리고 예전에 사귀던 여자에게 부채를 요구하자 그 부채 귀퉁이에 적어 보낸 노래이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남자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부채의 가장자리에 적어 보낸 것이다.

그런데, 부채가 불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래 노래는 중국 한시 반첩여(班婕妤)의 「원가행(怨歌行)<sup>20)</sup>」의 고사를 바탕으로 불린 노래이다.

新裂齊紈素 새로 자른 제나라 흰 비단이

20) 혹은 단선시(團扇詩)라고도 함 육조문화(六朝文化)를 대표하는 시문선집인 『문선(文選)27권』에 실려 있다.



鮮潔如霜雪	서리나 눈과 같이 선명하고 깨끗하여
裁為合歡扇	재단해서 합환선을 만드니
團圓似明月	고르게 둥근 것이 보름달과 같구나
出入君懷袖	님의 소매 속에 드나들며
動搖微風發	흔들려져 미풍을 일으켰지만
常恐秋節至	항상 두려운 것은 가을이 되면
涼颺奪炎熱	차가운 바람이 더위를 앗아가
棄捐篋笥中	대나무 상자 안에 버려져
恩情中道絕	성은의 정이 도중에 끊기는 것이다

첩여(婕妤)는 중국 한대(漢代) 궁녀의 관명이다. 반첩여(班婕妤)는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후궁으로 처음에는 성제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사랑이 또 다른 후궁인 조비연(趙飛燕)에게로 옮겨 갔다. 사랑을 잃은 그녀는 임금과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는데 문득 가을이 되면 쓸모없게 되는 부채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시를 지어 마음을 달랬다. 그 시의 제목이 「단선시(團扇詩)」라고도 불리는 위의 「원가행(怨歌行)」이다.

자신을 아름다운 흰 비단으로 만든 부채에 비유해 여름동안 왕의 품에 안겨 사랑받았지만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상자 속에 보관되어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서 부채는 임금의 총애를 잃은 반첩여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철이 지나 쓸모없게 된 물건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후로 가을철의 부채란 의미의 '추선(秋扇)'은 남자의 사랑을 잃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도 많은 예를 들었지만, 일본 시가는 오랜 세월이 걸쳐 중국 한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으며, 중국 한시의 표현을 소화 흡수하면서 섬세한 표현력을 길러 왔다. 그렇다고 중국문학을 있는 그대로 흡수한 것이 아니다. 이국의 언어 관념 표현과 깊이 접촉하면서 그 표현세계가 보다 풍부해지고 세련되어졌으며,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표현 세계도 확립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일본적 전통미의 규범을 확립했다고 하는 헤이안 왕조 이래의 고전주의적 표현도 와카와 한시의 긴장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연마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본고전문학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표현상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슬픈 이야기는 중국의 고대 여인과 같은 입장에 처한 '헤이안 왕조' 시대의 여성들에게 주목받아 가을이 되면 싫어진다(秋になると飽きられる) 라는

일본어 표현과 맞아 떨어지고 이에 공감을 느낀 여성들이 노래의 소재로 부채를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 부채가 불길하다고 하는 것은 여름에 애용된 것이 가을이 되면 쓸모없는 존재로 되어 버림받는 것처럼 변심하기 쉬운 총애에 번롱당하는 수동적 타율적인 여성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가을바람은 지나간 겨울밤을 함께 지내야 할 사람의 부채를 자각시키지만 이것도 옛 중국 한시의 발상과 관계가 깊다. ‘孤閨寒風’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와카전통이 누적되어 후대에 이르러서는 ‘바람’을 소재로 해 노래하는 제영가(題詠歌)<sup>21)</sup>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두 수의 노래의 제목은 “해질 무렵 부는 바람이 사랑을 재촉하는 마음을 읊다(晩風催戀といへる心をよめる)”와 “바람에 사랑을 빗대어 부르기(寄風戀)”로 되어 있다.

晩風催戀といへる心をよめる  
よとともにつれなき人を恋ぐさの露こぼれます秋のゆうかぜ  
밤이 되니 무정한 사람이 그리워 눈물짓는구나. 가을 저녁 부는 바람으로  
(千載 卷十二 772)

寄風戀  
聞くやいかにうはの空なる風だにも松に音するならひありとは  
들으셨는지요 공중에 떠다니며 부는 바람조차도 마츠(待つ;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츠(松; 소나무)를 찾아 짓든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하는지요  
(新古今 卷十三 1199)

#### 4. 심부름꾼· 방해물로서의 바람

높은 산등성이나 고개를 넘어 자유자재로 움직여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면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 즉 ‘바람이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가이(甲斐)지방의 산중에 두고 온 사람을 생각하며

甲斐が嶺を嶺越し山越し吹く風を 人にもがもやことづてやらむ  
가이(甲斐) 고개를 넘어 부는 바람이 사람이라면 내 소식을 부탁하고 싶구나  
(古今 卷二十 1098)

라고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아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읊은 노래가 있다.

21) 제목을 내걸고 노래를 읊는 「題詠歌」는 千載, 新古今 시대에 이르러 유행한다.

『만요슈(萬葉集)』의 가집에는 ‘내가 바람이라면’ 하는 가정 하에 연인을 자주 만날 수 없는 고통을,

息の緒に 我は思へど 人目多みこそ 吹く風に あらばしばしば 逢ふべきものを  
살아있는 한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람들 눈이 많아 만날 수 없다 바람이라면 자주 당신  
을 만날 수 있을 텐데 (万葉 卷十一 2359)

라고 호소한 노래도 있다. 생생한 감각적 표현으로 관능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다음의 노래도 있다.

妹に恋ひ寝ねぬあしたに吹く風は 妹に触れば我にも触れこそ  
그 처자 생각에 잠 못 이룬 새벽에 부는 바람이여 처자에게 닿았다면 내게도 닿아다오  
(万葉 卷十二 2858)

이와 같이 험한 곳이나 장애가 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바람’의 속성 때문인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신하는 전언이나 편지 혹은 소문을 전하는 매개자로 다수 읊어지고 있다. 이하 ‘바람’이 소식을 전해준다는 발상에서 읊은 노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目に見えぬ風に心をたくへつつやらば霞のわかれこそせめ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마음을 실어 보낸다면 당신은 이런 마음을 받아 주실는지  
(後撰 卷十三 930)

雲井地のはるけきほどの空事はいかなる風の吹きてつけけん  
구름 저편의 헛소리를 도대체 어떤 바람이 그쪽으로 가 전했을까요  
(後撰 卷十六 1141)

いづより吹きくる風の散らしけむ 誰ものぶの森の言の葉  
어디에서 발생한 바람 때문에 소문이 세상에 퍼졌을까요 비밀로 한 둘만의 사이였는데  
(千載 卷十三 827)

別れ路は雲居のよそになりぬともそなたの風のたよりすぐすな  
당신과 헤어져 떠나는 길은 머나먼 저쪽일지라도 바람이 전하는 편지를 잊지 말아주었으면  
(新古今 卷十 894)

그런가 하면 배의 부두 접근을 방해하고,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을 지게하며 초목을 시들게 하는 방해물 역할을 하는 ‘바람’을 읊은 노래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水霧(みなぎ)らふ小島に風を疾み 舟寄せかかねつころは思へど  
물안개 심한 작은 섬에 바람이 심하여 배가 접근하기 어렵구나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않지만  
(万葉 卷七 1401)

花散らす風の宿りは誰かする我にをしへよ行きてうらみむ

꽃을 지게 하는 바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다오. 찾아가 원성을 높이리라  
(古今 卷二 76)

吹く風にあつらへつくるものならばこの一本は避きよと言はまし

부는 바람에 내 바라는 생각을 전할 수 있다면 이 한 그루만 피해 달라 할 텐데  
(古今 卷二 99)

吹くからに 秋の草木のしをるればむべ山風をあらしといふらむ

살짝 부는 바람에 가을 초목 시들어 그래서 산바람을 아라시(嵐)라 하더라<sup>22)</sup>  
(古今 卷五 249)

恋しくば見てもしのばむ紅葉ばを吹きな散らしそ山おろしの風

임 그리워지면 그냥 지켜보리 단풍을 흩트리지 말아다오 산바람이여  
(古今 卷五 286)

千代までも心して吹け紅葉を神もをしほの山 おろしの風<sup>23)</sup>

영원히 마음 쓰며 불어다오 신께서도 단풍 아낌을 아시오 산바람이여  
(新古今 卷十九 1899)

뿐만 아니라, 배신·중상·질투 등을 불러일으키는 방해물이란 이미지를 ‘바람’에 중첩시키는 경우도 있다.

須磨<sup>24)</sup>のあまの塩やくけぶり風をいたみ思はぬ方にたなびきにけり

바람이 거세어 스마 어부의 소금 굽는 연기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古今 卷十四 708)

위 노래에서는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 간 다른 남자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연기에 빗대어 여자의 배신을 ‘연기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상대 여인의 배신을 원망하는 마음을 읊고 있다.

다음 두 노래도 유사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어, 『고킨슈』의 위 노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22) 이 시가는 산바람을 노래한 것이다. 바람이 내리불면 가을의 초목은 시들어 버리므로 과연 산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시라고 山아래 風을 써서 표기하는구나 하는 의미를 가진 노래이다. 연어유희와 같은 느낌의 노래인데 가을에 거칠고 험하게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가을 정취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노래이다.

23) 오시오야마(小鹽山)의 아름다운 단풍을 지게 하는 바람에게 이 산의 단풍은 신도 아까워하고 있으니 천대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불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풍이 진다는 것은 비애이고 슬픔이며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해치는 가을바람을 원망하는 노래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현재 고베시(神戸市)의 스마(須磨)구의 해안일대를 가리킴

風を疾みくゆる煙の立ち出でてでも なほ懲りずまの浦ぞ恋しき

부모의 질책이 심해 내색 못하고 있지만 그리운 마음만 더해진다

(後撰 卷十二 865)

風を疾み思はぬ方に泊りする 海人の小舟もかくやわぶらむ

바람이 심해 생각도 못한 곳에 정박하게 된 어부의 배도 나처럼 탄식하고 있을 것이다  
(본처의 질투가 심해 사랑스런 이가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원통하기만 하다)

(拾遺 卷十五 963)

전자의 노래는 ‘심하게 질책하는 부모’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으며, 후자의 노래는 ‘질투심으로 분개해 있는 본처의 방해 행위’를 ‘바람’에 빗대어 애면글면 애만 태우는 연심을 능숙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 Ⅲ. 나오며

이상으로 『만요슈(萬葉集)』, 『고킨슈(古今集)』, 『고센슈(後撰集)』, 『슈이슈(拾遺集)』, 『신코킨슈(新古今集)』를 주 대상으로 삼아 일본 와카의 경우 ‘바람’의 이미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눈·비·바람 등으로 강수량이 풍부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다양하며 ‘花鳥風月’을 대상으로 읊은 노래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는 나라인 만큼 ‘바람’을 소재로 한 노래의 빈도수 역시 방대하였다. 본문에서는 일단 ‘바람’을 소재로 한 와카를 분류 검토한 후, 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노래를 중심으로 ‘바람의 이미지’에 관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인간에게 부재한 위력을 발휘하며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줌
- 계절의 도래나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을 미리 알려주며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 흔들어놓음
-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도 함
- 달콤한 로맨스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방해자 역할을 하기도 함
- ‘가을바람’의 경우 일본식으로 변용되어 남녀의 불화 변심을 의미함

일본의 고대 가인들은 다채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에 융화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풍요롭게 배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가공하지 않고 소박하게 담아낸 와카도 있는가 하면 인간의 심성을 자연현상의 묘미에 비유하여 다양한 표현 세계를 추구한 노래도 많아 옛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생각이 얼마나 깊고 강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표현양상에 주목할 경우, 중국 한시에 자극받아 습합된 형태로 읊어진 시도 있지만, 일본적으로 변용되어 독자적인 표현을 획득한 와카도 상당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 논고에서는 자세히 다룰 수 없었지만 다른 지면을 할애해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参考文献】

-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1』, 小学館, 1994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2』, 小学館, 1995.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3』, 小学館, 1995.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4』, 小学館, 1996.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 小学館, 1994.  
 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上代歌謡』, 小学館, 1978.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今和歌集』, 小学館, 1994.  
 日本古典文学全集, 『新古今和歌集』, 小学館, 1978.  
 新日本古典文学大系, 『後撰和歌集』, 岩波書店, 1990.  
 新日本古典文学大系, 『拾遺和歌集』, 岩波書店, 1990.  
 新編国歌大観編纂委員会編(1985), 『新編国歌大観·勅撰集編 第一卷』, 角川書店, 1985.  
 윤영수, 「人麻呂歌集 七夕歌의 文学史的 意義」, 『동아시아 고대학』, 제26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임성철, 『일본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서, 2002  
 犬養廉 외 6인 감수, 『和歌大辞典』, 明治書院, 1989  
 大貫茂(1993), 『万葉の花鳥風月』, 保育社  
 渡辺秀夫, 『詩歌の森』, 大修館書店, 1995  
 中野幸一訳注, 『伊勢物語』, 旺文社, 1990  
[http://www.nfm.go.kr/folk/folkStory/folkStory\\_01\\_021.jsp](http://www.nfm.go.kr/folk/folkStory/folkStory_01_021.jsp) 2008년 3월 22일 검색

## 要 旨

本稿では、日本の私撰歌である『万葉集』と八代敕撰集を中心に古代日本人たちは‘風’という自然をどのように眺め、受け入れたらうか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

雪・雨・風に降水量が豊富で、四季折々の変化が多様でひらがなの開発に多くの文学的遺産を持っている国であるだけ歌数も膨大で代表性のある歌を中心にして論を展開した。

その結果をまとめてみ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

- ・ 霊力を持つ存在で、意外な幸運をもたらし、人間以上の威力を発揮する存在
- ・ 物事の 予兆, 先駆け, 季節の変化を知らせる存在
- ・ 遠く 離れている所や障害物をものともせず自在に行き交う使い者としての存在
- ・ 秋風の場合, 甘いロマンスの橋渡しとしての役割をする場合もあるが, <飽き>が重ねられ, 男女の不和, 心変りを意味する場合もある

日本の古代歌人達は、多彩な自然環境の中で自然に融和し、自然を理解して眺める方式を現代を生きる我々よりも豊かに培っていたことがよく分かる。目の前に広がる風景を加工せずに素朴に表現した和歌もあるかと思えば、人間の心を自然現象の妙味になぞらえ表現した素的な和歌も多くて、昔の人たちの自然への愛着がいかに強かったのかよく窺える。これら和歌の中には国を超えて共感を呼ぶ歌も多い。

表現面に注目するならば、中国漢詩に刺激され習合した形で詠まれた歌もあるが、日本的に変容され独自の表現を獲得した和歌もかなりある。本考では、詳しく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が、それについては今後の課題としたい。

キーワード：日本古典和歌・イメージ・風・霊力・予兆・障害物・使い者

투 고 : 2012. 5. 31  
1차 심사 : 2012. 6. 16  
2차 심사 : 2012. 7. 7